

청소년 34% “죽고 싶다 생각해봤다”

죽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 37.2% 학업 문제 꼽아

청소년 절반 수면 부족...고교생은 68.3%가 호소

학업 스트레스·불안한 미래 청소년 삶에 고통줘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중 33.8%는 평소 죽고 싶다는 극단적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24일 2018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이행연구: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형식에 맞춰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폭력 및 학대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 등 7개 영역별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대상은 초등학교 2745명, 중학생 2858명, 고등학생 3456명 등 총 9060명이다. 조사대상 청소년 중 33.8%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28.6%는 가끔 생각한다. 5.2%는 자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들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주된 이유는 가장 많은 37.2%가 학업문제(학업부담·성적)를 꼽았다.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21.9%, 가족 간의 갈등 17.9% 순이었다. 아동·청소년은 과중한 학업부담으로 자유로운 생활시간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다. 수면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청소년은 전체의 절반인 52.4%에 달했다. 특히 고교생은 68.3%가 수면시간 부족을 호소했다. 하루 여가시간이 2시간 미만인 고등학생은 54.8%, 중학생 40.4%, 초등학생 34.5%였다. 청소년 중 운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3.5%였다. 고교생 34.9%는 운동을 일주일에 1회조차 하지 않았다. 중학생은 24%, 초등학생은 8.7%였다. 연구진은 “아동·청소년들의 높은 학업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가 이들의 삶에 고통을 주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정신적 고통 등 주변에 말하기 어려운 고통이 있거나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어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1577-0199), 희망의 전화(129), 생명의 전화(1588-9191), 청소년 전화(1388) 등을 통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뉴스**

지난해 어린이 예방접종

88~97% ‘WHO 최우수’

지난해 1~3세와 6세 어린이가 170만 명의 백신별 예방접종률이 88.3~96.8%로 집계됐다. 3세 아동 기준으로는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보다 3~10%포인트 높은 접종률을 보였다.

질병관리본부는 2012년과 2015~2017년 출생한 전국 170만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까지 접종기록을 분석한 '2018년 전국 예방접종률 현황'을 24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연령별 완전예방접종률은 ▲생후 12개월(2017년생, 6종 백신, 16회) 96.8% ▲생후 24개월(2016년생, 8종 백신, 21회) 94.7% ▲생후 36개월(2015년생, 10종 백신, 25~26회) 90.8% ▲생후 72개월(2012년생, 7종 백신, 18~20회) 88.3%였다.

17개 광역자치단체별 가운데 울산이 모든 연령대에서 높은 완전접종률을 보였다. 반면 서울은 만 1세, 2세, 3세, 6세 모두 전국 평균 접종률을 밑돌아 가장 낮은 곳으로 나타났다.

만 1~3세 연령별 완전접종률은 2017년 대비 0.2~0.6%포인트 증가했다. 2015년 5월 국가예방접종에 A형간염(HepA) 백신 추가로 접종 횟수가 2회 증가한 만 3세 완전접종률도 0.4%포인트 올랐다.

처음 공표되는 A형간염(HepA) 백신 접종률은 95.3%로 국가예방접종으로 무료지원되기 전(84.7%)보다 10.6%포인트 증가했다. 2017년이 첫 공표였던 페렴구균(PCV)백신 접종률은 96.8%에서 97.2%로 0.4%포인트 증가했다.

만 6세는 이번에 처음 공표 대상에 포함됐으며 이들이 만 12세가 되는 2025년에 12세 어린이도 예방접종률 공표 때 들어간다.

뉴스



일본뇌염 경보 발령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2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정안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이 채집한 모기를 분류하고 있다.

허석 순천시장, 지역신문발전기금 관련 입장 밝혀

검찰이 지역신문발전기금 사건과 관련 허석 순천시장 등을 기소한 것을 두고 허석 시장이 23일 입장을 발표했다.

허석 시장이 사법기관 수사를 두고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허 시장은 “이번 사건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때 오로지 저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10여 년 전의 일을 들추어 쟁점화 하더니 제가 당선되자마자 고발한 사건”이라며 “그동안 고발인 등의 악의적인 공격이 1년 이상 계속되었지만 수사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이 사건에 대한 언급을 삼갔다”고 말했다.

그리고 사법기관의 수사가 1년 이상 지속되면서 시민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유야 어찌되었든 시민들께 걱정을 끼치게 되어 매우 죄

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시민과 함께 새로운 순천 만들기를 흔들림 없이 계속할 것이며, 재판을 통해 진실과 정의가 반드시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시민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번 사건을 자세히 소개했다. 허 시장은 “여느 지역신문과 마찬가지로 창간할 때부터 재정을 겪어왔던 순천시민의신문은 대표가 사재를 털어 부족한 재정을 메운 상황이었다”면서 “직함은 대표이사였지만,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게 될 때는 신문사 운영에서 손을 떼고 편집국장 중심으로 신문사를 운영했으며 논술학원을 운영해 신문사의 부족한 재정을 충당했다”고 강조했다.

일부의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급여를 받기는커녕 매월 100만 원에서 수

백만 원을 후원했는데도 ‘가로채’, ‘빼돌리’ 등 마치 제가 공금을 횡령이라도 한 것처럼 보도하고, 고발인도 저를 ‘사기꾼’이라며 SNS에 도배질하고 다닌다는데, 정말 참담하다”라고 심정을 밝혔다.

허석 시장은 마지막으로 순천시민을 향해 “민선7기 순천시정을 운영하면서 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무원 인사에서는 매관매직과 갑질을 없애고 사업에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무엇보다 시민이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의 메카, 순천’을 만들어 가고 있는 지금, 시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정을 흔들고 있는 세력으로부터 저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술자리서 여제자 성추행 대학 교수 기소

광주지검은 술자리에서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조순대 교수 A(56) 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 교수는 지난 3월9일 오후 9시에 서울의 한 술집에서 자리를 함께 한 여성 대학원생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다.

A 교수는 피해자 등 대학원생 3명과 같은 날 학술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한 뒤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법인 이사회는 지난 6월 전체회의를 열고 A 교수를 직위해제했다.

목포 해상서 남성 변사체 발견...경찰 수사

목포 앞 해상에서 신원미상의 남성 변사체가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36분께 전남 목포시 동명동 앞 해상에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 시신을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해 신고했다.

신고 받은 해경은 대원들을 급파해 시신을 인양, 목포의 한 병원에 안치했다.

60~70대 남성 시신으로 추정되는 변사체는 나체 상태로 발견됐다. 해경은 변사자의 신원 확인 및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은행 환전 중 100위안 위조지폐 발견

광주 모 은행에서 환전 과정에 위조된 100위안 지폐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9시30분께 광산구 모 은행에서 A씨가 환전을 요청한 중국돈 여러 장 중 100위안 지폐 1장이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지폐가 진짜 화폐와 재질 등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의 딸이 중국 여행을 다녀온 뒤 A씨가 환전하러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고, A씨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임형택 기자

수영장에 빠진 40대, 병원 이송했지만 숨져

부산의 한 수영장에서 의식을 잃고 물에 빠진 40대 남성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다.

24일 동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1시 21분께 동래구의 한 실내수영장에서 40대 남성 A씨가 누운 자세로 물 속에 가라앉아 있는 것을 안전요원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씨는 119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10년 동안 수영을 한 실력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의식을 잃은 이후 물에 빠져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검안의 소견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경위를 조사 중이다.

같은 고시텔 여성 성폭행 시도 40대 구속

경찰이 같은 고시텔에서 사는 여성 거주자를 성폭행 하려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이모(40)씨를 강간미수와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18일 오전 2시28분께 서울 동작구 한 고시텔에서 거주하는 여성의 방에 무단으로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고시텔에 살던 이씨가 출입구가 열린 틈을 타 여성 전용층에 몰래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후 이씨가 무작위로 방문을 열어봤으며 한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 시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다른 거주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이씨는 성폭행에 실패한 뒤 자신이 지내는 층으로 돌아가 숨어있던 상태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횡설수설하는 등 일관되지 않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를 이어가면서 24일 이씨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뉴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